

## “주여, 방관한 죄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치소서”

지난 10년 간 4천만 명 교회 이탈  
 낙태를 지지하는 크리스천 늘어  
 미국의 죄는 우리가 방관한 죄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지난 10년간 미국에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지난 10년간 2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크리스천 50% 이상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국이 다시 믿음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전세계 자유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미국이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방관했습니다. 주여, 캘리포니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 제73회 국가기도의 날

제 73회 국가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가 5월 2일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9-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미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낙태를 지지한다.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금지하면서 대통령 캠페인을 펼쳤었다. 8년 만에 이번에는 곤란하니가 말을 하지 않고 주별로 알아서 하라고 한다. 이슈를 삼으면 떨어질 줄 아니까 주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매춘도 권리이며 매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제 73회 국가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가 5월 2일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기독일보

15세 이상이 매춘을 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리고 “타고난 것이 성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성이라고 한다.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목욕탕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고, 성전환 수술을 미성년 학생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만일 부모가 반대하면 신원조회에 들어가서 아이를 빼앗길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는다. 아무리 흠담물이 많아도 한 곳에 맑은 물이 나오면 그 연못은 언젠가 맑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회개운동을 위해 기도를 한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는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시대에 대마초는 마약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할 수 있다”라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원한다. 회개하면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한 강순영 목사(전 JAMA 대표)는 “리더들의 영향력이 커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특별히 캘리포

니아가 악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며 “교회가 희망이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가정과 사회가 바뀌어질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다.

미국의 중요한 현안 문제들을 위해 기도한 고대형 목사(선한목자교회)는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할리우드가 비성경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도록 기도하자.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 6면에서 계속



총회 마지막 날인 3일 아침예배 후 대의원들과 참관인, 스태프들이 기뻐하고 있다. ©UM News

## UMC “창립 후 가장 중요한 총회” 폐회

동성애자 안수, 각 지역 연회 결정, 떠난 교회들 돌아올 길 조성 주장, 동성애 비난 제거  
 동성애자들의 목사안수를 금지한 장정 조항을 끝내 폐지한 UMC 총회가 10박 11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5월 3일(현지시간) 폐회했다.

4년마다 열리던 총회는 코로나 19와 동성애자 관련 갈등으로 8

년 만에야 열렸다. 특히 동성애를 허용하는 듯한 총회 방침에 반발해 총회가 연기되던 4년 동안 무려 7천 5백여 교회가 탈퇴했으며, 이는 전체 교회 수의 1/4에 해당된다. 이들은 대부분 새로 설립된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로 옮겼다.

폐회에 앞서, 총회는 UMC 여성 지위와 역할 위원회 명의로 UMC 내에서 ‘잘못된 성적 행위(sexual

misconduct)’를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 석상에서 전 세계 UMC 연회 감독 전체를 향해 이후 각 총회에서 사과문을 낭독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폐지와 관련해 하위 관련 조항들도 모두 철회했으며, 목회자들의 결혼식 주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개정 안도 승인했다. → 6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셀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 창립기념 부흥성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은혜 **42nd** ANNIVERSARY

**2024. 5.16(목) ~ 19(주일)**  
 16(목) 7:30pm / 17(금) 5:30am, 7:30pm / 18(토) 6:00am, 7:30pm  
 19(주일) 1부 7:20am, 대예배 11:00am  
 강사: 이수훈 목사(당진 동일교회)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이수훈 목사 프로필과 저서**

현) 당진동일교회 담임목사  
 한국소그룹연구원 연구위원장  
 목회전략연구소의 소장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M. Div)을 졸업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Th. M) 취득

-기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풀린다  
 -왜 그 교회는 젊은 부부가 물러올까?  
 -하나님 말씀대로  
 -강한 바보가 되다  
 -Clear, inivratfoe  
 -꿈꾸는 교회 충주는 하나님  
 -나도 행복하고 싶다 등등

**교육부 부흥회 안내**

**5/16-18(목-토)**  
 영아, 유아, 유치: 7:30pm @ Dreamland Elementary: 7:30pm @ WPC  
 Jr high, High, College: 7:30pm @ MC 203  
 Speaker: Charles Victor

**5/19(주일)**  
 영아, 유아, 유치: 11am @ Dreamland  
 Lower Ele: 11am @ VC 128 (LE 예배실)  
 Upper Ele: 11am @ MC 351 (UE 예배실)  
 Jr high: 11am @ Cafeteria (중등부 예배실)  
 High: 11am @ MC 203  
 College: 2:15pm @ MC 203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주일 | 1부 7:20am, 2부 9:10am, 3부 11:20am, 4부 2:00pm | 금요성령집회 7:30pm | 새벽예배(일천번제) 월~금 5:30am, 토 6:00am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TEL: 714.446.1000 | www.gracemi.com

# 자녀들이 평생 품고 사는 질문과 목말라 하는 한 마디

어린이날을 맞아 토렌스조은교회 김우준 목사는 5월 5일 주일설교에서, 자녀들의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들려주어야 하는 말이 있다고 설교했다. 그는 꼭 무엇인가를 잘 했을 때, 칭찬과 격려를 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그들은 항상 타인의 평판과 인정에 목마른 채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했다.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라고, ‘너는 우리 보물’이라고도 불러 주는 것이다.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을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어야

한다며, “엄마의 긍정적인 말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착각을 만든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자존감이 달라지고 또 그에 따라서 실제 결과와 성과가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목말라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며,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실까’라는 질문을 평생 품고 살아간다고 했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알겠는데 한가지 잘 모르겠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 목말라한다. 자녀들이 듣고 싶



토렌스조은교회는 어린이날을 맞아 주일예배 중 어린이들이 공연했다. ©기독교일보

은 말 중에 하나가 ‘너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말이다. 무엇인가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서 너를 자랑스러워 하려는 말이다.”

## 기독교교육의 중심축을 교회에서 가정으로



PCCE (Pacific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에서는 릴리재단 (Lilly Endowment)의 지원을 받아 이민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Nurturing Children through Worship and Prayer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pccce.wmu.edu

한국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대한 이슈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그러나 폐교 문제와 지역사회의 소멸 위기 보다 더 심각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것은 교회이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다음 세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신앙 전승의 단절은 결국 교회의 존폐와 기독교의 급격한 쇠퇴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 신앙전수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적 신앙교육과 신앙전수에 대해서 고찰해 보아야 한다.

발단단계에 따른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위해 주일학교의 연령별 예배와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간의 신앙 단절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CCE (Pacific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에서는 릴리재단 (Lilly Endowment)의 지원을 받아

이민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Nurturing Children through Worship and Prayer Project'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모들을 대상으로 'Christian Parenting and Caregiving Project'를 실행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최윤정 교수를 디렉터로 유창식 목사, 김지용 전도사가 학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 경험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urturing Children through Worship and Prayer Project'의 핵심 사역은 '가정예배'와 '세대간 통합 예배'인데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들을 연구개발하여 PCCE 플랫폼(pccce.wmu.edu)에 공유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가정예배를 위해 돕기 위해 반응형 예배 슬라이드, 인도자를 위한 가정예배 가이드북, 가정 신앙교육 콘텐츠, OHANA(기독교 자녀교육 매거진), 메타버스 교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매주 제공하고 있으며 세대 간 통합 예배에 대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두란노와 협력하여 두란노가 제작한 가정예배 순서를 한글과 영어로 제공한다.

또한 'Christian Parenting and Caregiving Project'를 위해 2024년에는 '부모코칭', '사이좋은 부모 생활', '장애인 부모 임파워링'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이 사역에 현재 LA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김우준 목사)가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내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이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동부사랑의교회와 토렌스 조은교회에서만 150여 가정이 가정예배에 참여 중이며 80여명의 부모들이 부모코칭 클래스를 수강했거나 수강 중이다.

이 사역에 교회가 협력할 수 있으며 개인과 가정이 참여할 수도 있다. 관련 문의는 pccce@wmu.edu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 연약교회 설립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

45년 이상 소속되어 있었던 미연합감리교단(UMC)을 지난 12월 탈퇴하고, 올해 1월 독립교회로 새롭게 출발한 연약교회(담임 장수영 목사 Covenant Korean Church)가 설립 및 장수영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오는 5월 19일(주일) 오후 4시 연약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연약교회는 1978년에 포모나 밸리 한인 연합 감리교회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 UMC에 가입했으나 지난해 12월 탈퇴하며 독립교회로 새롭게 출발했다. 주소: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웹사이트: www.covenantkoreanchurch.com.



연약교회는 45년 이상 소속되어 있었던 미 연합 감리교단을 작년 12월 탈퇴하고 독립교회로 새롭게 출발했다. 장수영 담임목사. ©연약교회



## 한·미 양국을 위한 구국 기도회

구국기도회가 5월 15일(수) 오후 4시 벨엘장로 교회(설립자 변영익 목사, 857 So. La Brea Ave. LA, CA. 90036)에서 개최된다.

기독교연맹과 미주대한신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구국기도회는 고봉 김치선 박사와 백범 김구 선생이 주도했던 구국기도회를 계승하는 기도회로서 사회 이강필 목사(남가주 노회장), 설교는 이은규 박사(현 미주 대한신학대학 총장)가 맡았다. 문의: 323-731-9819 (류당열 목사)

# 연약교회 설립 & 장수영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

45년 이상 소속되어 있었던 미 연합감리교단 (UMC)을 동성애 이슈로 작년 12월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였고 올 1월, 연약교회 (Covenant Korean Church)는 독립교회로서 제 2의 창립으로 새롭게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기억하고자 설립 및 초대 목사님인 장수영 담임목사님 취임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연약교회를 위해 기도와 사랑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24년 5월 19일 오후 4시
- 장소 : 연약교회 본당
-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 Email: covenantkoreanchurch@gmail.com
- Web: www.covenantkoreanchurch.com
- 문의 : 909-622-8815

장수영 담임목사

# 장애와 비장애의 막힌 담을 허문 '사랑의마당' 축제

##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9회 사랑의마당축제, 약 1천여 명 참가

올해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벽을 넘어, 발달 장애인 안에 담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발견하는 축제가 열렸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9회 사랑의마당축제'가 총 40 개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한 가운데 5월 4일(토), 오렌지카운티 'Buena Park Junior High School'에서 열렸다.

남가주밀알 이종희 단장이 환영사로 시작된 1부 시간에는, 오버플로잉교회 찬양팀의 공연, 해피빌리지 김장호 국장의 기도, 은혜한인교회의 Jesus' Light의 유인식 형제의 특송에 이어 권혁빈 목사(씨드교회)가 메시지를 전했다. 2부에서는 SOW(Seed of Worship) 팀의 찬양공연, 댄스파티 및 레크레이션 시간이 이어졌다.

남가주사신작가협회의 협조로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했으며 보이스카웃 단체 'BSA Troop'이 준비한 flag ceremony가 진행됐다. 2부에 순서는 SOW(Seed of Worship)팀의 찬양 공연, 댄스파티 및 레크레이션 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9회 사랑의마당축제'가 5월 4일(토),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에 위치한 'Buena Park Junior High School'에서 약 1천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기독일보

봉사로 행사에 힘을 보탤다.

사랑의(마당)축제는 매년 5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하여 치르는 행사로 올해로 24년을 맞았다.

이번 사랑의마당축제는 씨드교회(Seed Church)와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공동주관하고, GBC 미주복음방송과 Caravan Canopy, Hanmi Bank, 오버플로잉교회(The Overflowing Church), OC 한인라이온스클럽, Royal Business Bank, 셰프반찬에서 특별후원했다.

주최측은, "올해도 여러 교회, 단체의 정성어린 노고와 협력으로 사랑의마당축제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나눴다.

김민선 기자

## 페트라대학 졸업식, LA조이풀교회

5월 11일 오전 10시 개최



페트라대학교 제2회 졸업생들이 교수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앞줄 중앙이 총장 김정호 목사다. ©기독일보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산하 페트라대학교(Petra University, 총장 김정호 목사)의 제3회 졸업식이 2024년 5월 11일(토) 오전 10시에 LA 조이풀교회에서 개최된다.

페트라 대학교는 정통 보수신학과 세계 선교신학을 목표로 2013년 개혁주의 신학의 수호를 위해 캘리포니아에 설립되었으며, 학위 과목으로는 신학 학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

사 과정이 있으며, 모든 과정 유학비자(F-1)가 가능하고 수시입학 및 편입이 가능하다.

일정: 5월 11일(토) 오전 10시.  
문의: 213-210-3877, 213-909-3579.  
장소: LA 조이풀교회 (866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www.petrauniversity.org

## "기도 용사들이여,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자"

제1회 300용사 부흥단 '남가주 횃불 기도회'

제1회 300용사 부흥단 '남가주 횃불 기도회'가 엘에이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300용사 부흥단(총재 정주갑 목사)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도모하며, 최근 뉴욕 방문에 이어 엘에이를 방문해서 전세계 한국교회 부흥을 사모하고 있다. 문의는 213-347-5080 혹은 lynnkimoneheart@gmail.com으로 하면 된다.

1일 기자회견에서 정주갑 목사에 따르면 300용사부흥단은 코로나19가 유행을 할 때 출발을 알렸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체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참여하게 해주셨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횃불 기도회'라는 이름을 지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는 등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뉴욕에서 LA까지 한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했다. 이어 "저희 기도회는 나



300용사 부흥단이 1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독일보

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눈다. 나라의 안정과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라면서 "전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겸손하고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300용사 부흥단은 건강한 신앙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300용사 부흥단 '남가주 횃불 기도회'는 1일 저녁 지구촌

사랑의교회와 2일 오전에 산타모니카 및 게티박물관 방문을 시작으로 3일 오후 2시에 희망찬교회, 4일 오후 2시 솔로몬대학교 졸업식, 5일 오전 11시 LA광명교회, 6일 오전 10시 30분에 탱크기도원, 7일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예수사랑세계선교회에서 각각 기도 집회가 열린다. 300용사 부흥단 남가주 본부장은 백지영 목사가 임명됐다. 문의: 백지영 목사 (323-708-9191), 뉴욕본부장(718-637-1470) 토마스 맹 기자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2024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목회자 없는 교회 1천 개, “누가 무목(無牧) 교회를 위해 갈꼬?”

### 예배당은 있지만 목회자와 교인이 없는 교회들 다수 한류를 복음의 접점으로 삼아

시드선교회(SEED, 미주대표: 임태호)는 5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박영기 일본선교사를 초청해 남가주든든한교회(김홍 목사)에서 ‘누가 무목(無牧) 교회를 위해 갈꼬?’라는 제목으로 일본 선교 세미나를 진행했다.

시드선교회 미주 대표 임태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세미나에서 박영기 목사는 일본 선교의 현주소, 일본 선교를 하게 된 계기와 과정, 일본 선교의 다섯가지 유형에 대해 나누었다.



5월 6일(월) 남가주 든든한교회에서 진행된 ‘누가 무목(無牧) 교회를 위해 갈꼬?’라는 일본 선교 세미나에서 박영기 일본 선교사(앞 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본부장)는 일본에 1천 여 개의 무목교회가 있다며 일본 선의 현황을 나눴다. 1부 세미나 이후 단체 사진을 찍었다. ©기독교일보

### 일본선교 현주소

박영기 선교사는 일본 전국에 8천 개의 교회 중 코로나 기간에 1천 개가 문을 닫은 사실을 지적하며, 일본 전국에 시 단위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이 전국에 6곳이 있으며, 그 중에 3곳(시베츠 시, 아카비라 시, 아츠베리 시)이 훗카이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가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kpm.org)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박상용 목사님 내외 분이 그를 갑자기 찾아왔다. 오랫동안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큐티 사역을 하였고,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해 교회를 잘 성장시켰던 분이였다. 그 분이, 일본에 무목교회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마지막을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찾아 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박 선교사는, 일본 현지 교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훗카이도 베츠카이에 사이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옆 동네에 시베츠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예배당까지 잘 지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교인이 한 명도 없어서 메노나이트 연합회에서 그 교회를 팔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사러 온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사이키 목사님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희생한 이 예배당을 여호와의 증인에 팔 수 있으나, 우리 교회가 관리하고 유지할테니 우리 교회에 일임을 해

달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본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박 센세이, 시베츠 교회에 와서 사역할 한국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 몇 년 전 그 말이 생각났다.”

박영기 선교사는 두 분을 모시고 베츠카이 교회로 갔다. 그 두 분을 만난 사이키 목사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주의 종이 와서 사역하길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노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년간 건물이 있는데 20년간 불이 꺼져 있어서 덕이 되지 않았는데 밤마다 불만 켜도 선교가 됩니다”라고 했다.

두 분은 먼저 일본 교회 분위기와 일본어를 익히는 시간을 갖은 후, 시베츠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지난 부활절 때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 집에서 20개를 주문해, 부활절 설명을 쓴 메모지를 넣어서 집집마다 다니며 전달했다. 또, 한국 선교팀을 불러서 페인트를 칠하니 교회가 그 동네에서 제일 새로운 건물로 거듭났다. 남은 페인트로 동네 낡은 곳을 칠하자, 미용실 직원 4명, 원장님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목장 집에서도 오게 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박상용 목사님 부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신다.

박영기 선교사는,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 받은 교회가 북해도에만 3군데가 있다. 일본은 목회

자가 없는 교회가 많고, 목회자 한 명이 2~3교회를 순회하기도 한다. 제가 부탁 받은 두 교회는 삿포로 시내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 다른 하나는 나가시베츠 메노나이트 교회이다”라고 일본의 무목교회의 현실을 전했다.

### 일본 선교 과정

이어서 일본선교 과정을 나눴다. 1985년 2월 7일 일본선교사로 파송받고 동경 기독교 신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은 그자 등록비와 1년 학비를 내려 사무실에 올라갔을 때, 사무실 직원으로 부터 신기한 말을 듣게 된다.

“어떤 분이 와서 등록비와 일년 학비를 다 지불하고 가셨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 속에 떠오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러니 적당히 공부할 수 없었다. 수업에 가장 먼저 와, 제일 가운데 자리 앉아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3년을 지냈다.

첫 학기가 지나고, 동네 병원을 하시던, 나이가 70이 넘는 할머니 의사가, “당신을 돕고 싶는데 뭘 도와드릴까요?”라고 하셨다.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니, “아무도 살지 않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5년 동안 월세도 필요 없다”며 공짜로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다.

KPM(고신총회세계선교회) 선교

단체는 2년 동안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 집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을 받거나 협력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는 특별 케이스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 년에 10사람 정도 전도되었다. 한국 유학생들은 오기가 힘든 곳이었지만 한 10명의 유학생이 와서 큰 힘이 되었다. 그 중 한명이 심상은 목사님.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헌신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 가게 되었다. 저희가 처음 개척한 교회를 통해 헌신자가 10명이 나왔다.”

박 선교사는 8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했다. 어느날 동맹교단 이사장으로부터, 훗카이도 삿포로에 가서 개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1993년 신삿포로성서교회 설립에 배를 드렸다. 일본 동맹 교단에서 10년동안 사역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을 통일교로 오해했다. 오해를 막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해서 인사드렸다. 그 다음에 삿포로 아츠베쓰 구, 5만세대 12만 명이 살고 있다. 그래서 5만 장의 교회 안내서를 인쇄해서 가방에 가득 넣어서 가서 집집마다 다니며 나눠줬다. 몇 달 동안 그것만 뿌렸다. 한 사람씩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고 열심히 가르쳤다.

###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사역

세미나 2부에서 그는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서 할 수 있는 사역으로, 1. 무목교회를 섬기는 사역, 2. 일본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 3. 한국 선교사와 동역하는 사역, 직접 개척을 제시했다.

“첫 번째, 무목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일본에 1천 개의 무목교회가 있다. 예배당과 목사관이 있어서 바로 사역이 시작된다. 일본어가 서툴더라도, 한국어 교실, 한국 요리교실을 오픈하고 전

단지를 뿌리면 어느 동네든지 일본 아주머니들이 신청한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일단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 신뢰 관계가 없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이 통일교와 옴진리교 때문에 종교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두 번째, 일본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교사, 스포츠 교사, 반주자로 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한국 선교사와 동역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일본에 500유닛 정도 한국 선교사가 계신데, 부부만 사역하는 것보다 좋은 분들과 팀 사역을 하길 원한다. 부부만 사역을 하면 안식년도 갖지 못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강단을 맡아 줄 사람이 없다. 협력할 때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는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무목교회는 예배당과 사택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만 있으면 생활 가능하다. 선교사로 들어오면 의료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목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2주간 계획하고 있다며, 오전에 일본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일본어 성경 읽기, 일본어 주기도문, 찬송을 배우고, 직접 무목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목교회 선교사로 지원하려면, 여권, 법인체로부터 받은 파송증이 있어야 하며 재정보증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이 단체가 건전한 단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뉴스레터), 이력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를 이끈 박영기 선교사는 고신 교단 소속 선교사로, KMP 해외선교회 본부장 역임 했고, 39년동안 일본 선교를 했다. 삿포로에서 7개 현지 교회를 개척했다. 이번 세미나는 협력 남가주 든든한 교회(김홍철 목사, 213-481-2779), OC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협의회에서 협력했다.

문의: SEED 선교회(562-926-4700, seedwo@gmail.com)

주디 한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띵동!

1



센터메디컬그룹 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센터메디컬그룹



미주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이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니어 전문 의료 그룹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크리스천 학생들 위한 다양한 장학금

**나성영락교회 5월 19일(주일)까지**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5/19(주일)까지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미주 한인 기독교인 또는 나성영락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2024년도 가을 학기에 정규대학, 대학원 및 신학교에 재학 및 진학하는 학생.

5월 19일까지 웹사이트(youngnakscholarship.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323)227-1400, 이메일 scholarship@youngnak.com

**라구나힐스교회, 6월 21일(금)까지**  
라구나힐스교회(담임목사 립학춘) 장학회(회장 최병철)에서 2024년 장학생을 선발한다. 본인 또는 가족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며,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다.

총 10명의 장학생 선발하되 장학심사위원회에서 인터뷰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학생들에게는 각각 2,0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청서 마감은 6월 21일 까지이며, 1차 서류에 통과하면 2차 인터뷰를 거쳐서 선발한다. 장학 지원서는 교회 홈페이지(www.lagunachurch.com)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기쁜우리교회 5월 31일(금)까지**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는 크리스천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7회 기쁜우리교회 장학생을 5/31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본 주교회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장학금은, 일반,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 신학생으로 구분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참고(www.joyfulccc.org)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4@joyful.org로 하면 된다.

**ANC 온누리교회 5월 31일(금)까지**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는 5/31까지 장학생을 모집한다. ▲크리스천 학생 대상 장학금 ▲일반 장학금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장학금 등이 있으며 금액은 1,500~2,000달러이다.

신청은 장학위원회 웹사이트(www.ancsf.us)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문의: acsfug@gmail.com

**호프(뱅크 오브 호프) 장학생 5월 17일까지**  
뱅크 오브 호프(행장 케빈 김)가 호프 장학재단의 '2024년 호프 장

학금' 신청자를 지난 18일부터 5월 17일 오후 5시(동부시간 기준)까지 모집한다.

2024년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총 60명을 선발해 각각 2,500달러의 2024-2025 학년도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 호프 장학금 웹사이트 (https://scholarship.bankofhope.com)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 서류는 에세이, 추천서, 성적 증명서, 소득 증명 등이다.

**라이온스클럽 5월 31일(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에서 2024 장학생을 모집한다. 라이온스 클럽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모범 학생들에게 1년 장학생 30명에게 3000달러, 4년 장학생 2명에게 4만 달러를 지급한다. 2024년 미국에서 대학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 중인 자는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서류와 함께 5월 31일까지 업로드하면 된다. 웹사이트: laklc.org

**미주 한국어 교육 장학재단 5월 31일(금)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미국에 체류한 지 5년 이상 된 9학년부부터 11학년의 우수 학생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link-tree/klesf) 참고.

→ 1면 기사 "주여, 저희가..."에 이어서

기도가 필요한 나라들과 그립들을 위해 기도한 송창민 목사(에브리데이는)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이 시대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 믿는다"라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복한이 영적으로 황폐화 되어있다. 질투와 같이 어두운 그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기도하자. 전쟁 중인 나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자.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신앙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밝게 빛나는 법이다. 자녀들이 시대와 역사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기도회는 1부 예배와 2부 기도회로 진행됐으며, 1부 예배는 국육권 목사(충현선교교회)의 사회, 민경영 목사(나침반교회)가 기도,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의 환영인사,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설교를 맡았다. 2부 기도회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김은목 목사(평화교회),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 크리스틴 정 자매(사우스랜드교회), 양경선 목사(샘물교회), 유수연 사모(ABC교육 교육위원), 강순영 목사(JAMA),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회 협회), 김재권 장로(미주성서화 이사장),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손창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오운태 목사(순무브먼트), 김철민 장로(CMF가정선교회), 안현숙 목사(CBS중보기도팀장),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중만교회), 최금옥 권사(남가주동신교회), 김시은 목사(웅기장이교회), 박복길 장로(나성순복음교회), 그레이스 유 집사(LA시 10지구 시의원 후보) 등이 참여해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모든 순서는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 공동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국가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가 5월 2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 1면 기사 <"창립 후 가장 중요한 총회" 폐회>에 이어서

또 1984년 개정됐던 '혼전순결' 실천요구 사항을 철회하는 대신, "사회적 책임과 신의와 헌신, 일부일처(monogamy), 상호 애정과 존중, 정직한 의사소통, 상호 동의, 은혜 안에서의 성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 등을 통해 표현되는 성실한 성적 교제"를 추가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UMC 총회 마지막 날인 3일, 총회 서기(General Conference secretary) 게리 그레이브스 목사(Gary Graves)는 이번 총회를 "2020년과 2024년의 다목적 회의"로 표현했다.

이와 함께 총회 대의원들은 3억 3,734만 달러로 책정된 2025-2028년 차 회기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회기에 비해 무려

42% 감소한 금액이다.

이날 총대들은 1천 건 이상의 청원을 검토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로는 새로운 목회자 은퇴 계획안, 승인된 집사들(granted deacons)에게 사역지에서의 성찬 및 세례 권한 부여 등이 있다.

끝으로 UMC 연금재단 격인 웨스패스(Wespath)가 투자해선 안 되는 기업 목록에 '화석 연료 업체'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던 이전 결의를 재고해 달라는 안건(324-338)을 다뤘다.

UMC 소식을 전하는 UM News는 이번 총회에 대해 "1968년 UMC 창립 총회 이후 가장 중요한 총회였다."

앞으로의 총회는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며 "총회의 더 넓은 포용적 입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세계적인 지역화(地域化·regionalization)의

길은 모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사역을 계속하면서도 서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 등 각종 정책 결정권을 각 지역 총회(Regional Conference)로 이관시킨 결의에 대한 논평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UM News는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진 회원들이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총회를 떠난 교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투표로 바꾼 것이 가장 관심을 끌었지만, 이것이 총회에서 이뤄진 유일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총회 마지막 날에는 동성애 관련 결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발언들이 계속 등장했다. 이

번 총회 이후 UMC는 목회자들이 동성애자이든, 동성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든 처벌을 받지 않고, 동성결혼식 주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최초 흑인 의장에 선출된 트레이시 S. 말론(Tracy S. Malone) 감독은 "이번 총회 이후, 나아가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라. 가서, 그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라. 가서, 사랑이 되어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말자"고 권면했다.

트레이시 S. 말론 감독은 이번 총회의 주요 결정에 대해 "UMC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회"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날 아침 예배에서도 "지난 10일 동안 총회가 한 일은, 교회가 다음에 하게 될 일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말론 감독은 "희망이 되살아나고, 사람들이 서로 화해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아무도 여떠한 테두리에 넣지 않는 교회, 지리와 문화, 언어와 국경의 차이를 초월하는 교회를 상상해 보라"며 "이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서지방회 세드릭 브리지포트(Cedric D. Bridgeforth) 감독은 "동성애를 비난하는 '언어(조항)'를 제거함으로써, 교회는 세계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교회들이 선을 행하는데 지지치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지포트 감독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 감독이 된 인물이다.

이대용 기자

##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리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하고 회복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통증없이, 가볍하게  
**걸어보자! 뛰어보자!**



건강한 몸을 만드는 **기적의 신발!!**

**체험사례**

- “허리통증과 왼쪽 골반, 무릎, 종아리가 고질적으로 아파서 너무 고생했는데 이젠 신발 신고 너무 좋아요”
- “왼발을 질질 끄는데 이 신발 신자마자 그냥 걷고 있습니다”
- “스트로크로 2개월간 병원에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이 신발 신고 지팡이 버리고 갑니다”
- “족저근막염으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엄청 힘든데 이젠 괜찮아요”
-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는데 이 신발신고 교정해 발이 편해졌어요”
- “하루종일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젠 안 피곤해요”

**신발이 발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망가진 발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변형된 발은 신체의 근육과 관절, 골반, 척추 등 기타 통증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5월 가정의 달 구매고객  
감사 경품이벤트**

**You Tube** 기적신발TV  
[www.jgpamerica.com](http://www.jgpamerica.com)



**예약  
접수**

**신는 순간부터 허리에 강한 힘을 주고  
신체 균형을 잡아주면서 신체를 교정합니다.**

발을 알고 **신발**을 신으면 더욱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예약 안내  
구입 문의**

**올림픽 갤러리아 3층  
푸드코트 옆**

**(213)330-6810**

3250 W. Olympic Blvd. #304 LA, CA 90006

# “목회, 속도를 낮추더라도 씩 없이 달려가자”

## 샌퍼난도밸리교역자 협의회 5월 월례회, 만남의교회서

샌퍼난도 밸리 교역자 협의회(이하: 밸리교협, 회장 전지승 목사)가 5월 월례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5월 7일(화) 오전 만남의교회(밸리교협 총무, 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전지승 목사의 인도로 드린 예배는 신바나목사의 찬양인도 후에 변은광 목사(밸리생명교회 담임)의 기도하고 김종경 목사(밸리 교협 회계)가 고린도전서 9:25-2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종경 목사는 “인생과 목회를 마라톤에 많이 비유한다. 지나긴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마라톤과 목회가 닮았다”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의 경주장에서 수많은 자들이 달리지만 이기도록 경주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라고 했다. 달리를 해보니까 잡념도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정리가 되었다. 달릴 때는 가볍게 해야지 될 수 있더라, 목회도 우리의 인생도 내 생각과 욕심과 자아와 모든 판단과 감정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달리다 보면 꼭 목이 가 장 고통스러워하는 사점(데드 포인트)을 지나게 된다. 이때 달리를 포기하면 절대 완주할 수 없다. 뛰다가 걷게 되면 안 되고 속도를 늦추더라도 천천히라도 뛰어야 한다”면서 “우리 목회도 속도를 낮추더라도 씩 없이 달려가자. 전제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았던 조지 헛필드처럼 살아가자”고 권면했다.

이어 전지승 회장의 광고 후에 최주철 목사(은혜가 샘솟는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밸리 교협은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특별한 점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샌퍼난도 밸리 교역자 협의회가 5월 월례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독교일보

났다. 한편, 6월 월례회는 만남의교회 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셉 리 기자

##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5/17-19일(금-주일까지) LA 충현선교교회



2023년 아버지학교 미주대회. ©미주 아버지학교 제공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에서 개최하는 LA 113기 아버지학교가 오는 5월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LA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에서 열린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 아래 아버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픔과 약점을 털어놓고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명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교회에서 진행되지만 비기독교인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재조명하고, 올바른 아버지

상을 정립해 신뢰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는 국윤권 목사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경건한 남성이자 가정의 지도자임을 깨닫고, 가정의 연합과 하나됨의 주역임을 배우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 더 나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일궈가길 원하는 모든 아버지들을 환영한다”고 초대했다.

접수는 온라인 bit.ly/fatherschool\_LA113(클릭) 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150 달러로 Zelle(fatherschoolamericas@gmail.com) 송금이 가능하다. 식사와 간식이 제공된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info@fatherschool.org(아버지학교 미

주본부), 전화 206-334-2008(김기섭 운영위원장), 818-549-9191(충현선교교회)

한편 한국에서 1995년에 시작된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전 세계 75개국, 300여 도시에서 43만여 명이 수료했을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남미를 포함하는 미주에서는 2000년 개설 후, 1천 20회의 아버지 학교가 열려 3만 5천여 명이 수료하는 등 전 세계에서 수많은 아버지와 가정을 회복시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LA 113기 아버지학교 일정\*

5월 17일(금) 오후 7시- 오후 10시 30분

5월 18일(토) 오전 9시-오후 6시

5월 19일(일) 오후 4시 - 오후 9시.

## 발렌시아 샘물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발렌시아샘물교회(담임 이 건창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 및 임직예배를 드린다.

창립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는 오는 6월 9일(주일) 오후 4시에 교회 본당(주소 :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에서 드린다.

작년 11월 6일~8일까지 감사인교회에서 개최된 워브릿지 컨퍼런스에서 아내와 두살이 채 안된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6~7년차에 이르러 목회자로서의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경험을 나누었다. 그는 갈라디아서 1:1-5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수 차례 거듭 읽으며 자신의 사명을 다시 분명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는 것이다. 작은 교회 목사가 전하는 복



발렌시아샘물교회가 6월 9일 오후 4시에 창립 20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를 드린다.

음은 작은 복음인가? 작은 교회 목사의 사명은 작은 사명인가? 다른 것은 다 무너질 수 있지만 사명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갈 수 있음을 믿는다.”고 했다.

김민선 기자

## 치매 및 노인성 우울증 예방, 힐링 세미나

APCTC & YouStar Foundation이 함께하는 “오! 미리를 무료 힐링 세미나”가 오는 5월 11일과 주일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뮤리에타 갈보리 사랑교회에서 1) 치매예방 & 생활 습관 2) 노인성 우울증을 주제로 열린다. 임상심리학 박사 성소영, 신경내과 전문의 장원철, 이미지 디렉터

가 강사로 선다.

1차: 5/11(토) 1:00 PM 남가주 새누리교회

2차: 5/12(일) 1:30 PM 뮤리에타 갈보리사랑교회

문의: youstarfoundation@gmail.com, 213-255-6934, riverside@apctc.org, 213-393-8320



메디케어 전문 Agent

#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초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 광고 내 모든 내용은 모두 실제 확인은 아래 서울 메디칼 그룹의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 쿠바, 2023년에 종교 자유 침해 622건 발생



쿠바의 한 성당. ©DIOCESE OF ST. PETERSBURG

## <세계> 종교에 대한 정부제한지수, 2007년 이후 최고

퓨리서치(Pew Research)는 2007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종교에 대한 정부 제한과 사회적 적대감을 조사해 왔다. 정부제한지수(GRI)는 정부에 의한 종교적 신념과 관행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법률, 정책, 조치를 가지고 평가한다.

## 이주민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 필요

지난해 말 발표된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에 따르면, 전쟁과 분쟁, 폭력 사태로 인한 전 세계의 실항민은 1억 1천만 명을 넘었다. 2017년까지 스웨덴 Interact 소속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난민 사역을 감당하고, 이후 6년 넘게 유럽침례교연맹(EBF)에서 난민 문제 실무를 맡고 있는 로스버그(Daniel Räsberg) 선교사는 오늘날 이주(migration)가 복합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 선교사들이 갈등하는 수치심 극복을 위한 조언

선교사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과 여러 그룹들이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치심(shame)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다.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에서 20년 넘게 사역해 온 스티븐스(Faith Stephens) 선교사는 환경 적응, 언어 학습, 모금, 사역 기대, 트라우마, 괴롭힘, 위험 인지, 사역과 가정에서 역할, 연로한 부모 걱정, 책임감, 탈진 등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 <미주>

쿠바: 2023년에 종교 자유 침해 622건 발생해

전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에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쿠바에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FoRB)에 대한 침해가 6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SW는 쿠바 정부가 2021년 7월 시위 이후 몇몇 종교 지도자들을 구속하면서 지금까지도 억압적인 종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콜롬비아: 모계 중심 문화를 읽는 선교적 접근 필요

콜롬비아에서 가족은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기반인 동시에 개개인에게 지지와 위안을 주는 원천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콜롬비아 문화는 모계 중심이어서 가족생활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어머니는 가족의 유대와 전통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대응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률 5위를 차지하는 브라질에서는 여성 10명 중 3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2023년 여성 서비스센터(CAM) 핫라인을 통해 매일 평균 245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브라질 교회는 최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단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다루기 위한 표준 절차를 만들었지만, 많은 피해 여성들이 수치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미국: 히스패닉계 목회자들,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어

지난 3월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가 미국의 히스패닉계 목회자 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의 절반(51%)

만이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0%는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13%는 자원봉사, 6%는 시간제로, 1%는 임시로 사역한다고 응답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예배

미국 조지아주(州)의 애틀랜타 북동쪽에 위치한 클락스톤(Clarkston)은 1983년 이후로 아프리카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지금은 90개 이상의 민족이 모여 사는 마을로 바뀌었다. 2001년 이곳에 설립된 Proskunio Ministries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모여든 난민들과 함께 문화적, 정신적 지원을 공유하면서 다민족 예배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아시아>

필리핀: 정령숭배가 혼합된 민속 기독교 경계해야

필리핀은 현재 기독교인의 비율이 92%를 넘고 있지만 이전에는 정령숭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바탕 위에서 선한 영과 악한 영을 구분했고, 영적 존재들이 풍요와 비, 재해 같은 자연 현상뿐 아니라 인간의 운명까지도 결정짓는다고 믿었다.

인도네시아: 교회 주도의 곡물창고 운영으로 지역 내 식량 불안 감소해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남부 해안에 위치한 끄마당자바기독교교회(KJCC)가 2020년부터 곡물창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끄마당(Kemadang)을 포함한 인근 구농기둘(Gunungkidul) 지역은 빈곤율이 16%에 달하고 6천 가구 이상의 극빈층이 살고 있다.

인도: 2023년에 발생한 반기독교 폭력 600건 넘어

인도복음주의협회(Evangelical Fellowship of Indi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인도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폭력은 601건에 달했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해 무려 18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은 위협과 괴롭힘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고발에 따른 체포가 14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도: 해외기부금규정 강화로 기독교 단체들 어려움 겪고 있어

인도에서 갈수록 해외기부금규정(FCRA)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심해지고 있어 기독교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규정은 1976년 외국이 인도의 국내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몇 차례 개정되면서 5년마다 갱신하게 했으며, 최근에는 특정 은행 지점의 계좌를 보유하게 하는 등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 <유럽>

스웨덴: 이주민 사역에 대한 준비와 대응 필요해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도 같은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에는 주로 노동 이민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전쟁과 분쟁을 피해 온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가장 많은 이주민이 들어왔던 2016년은 한 해 동안 163,000명이 스웨덴으로 이주했고, 2023년도 인도, 시리아, 중국, 이란, 아프간, 파키스탄 등에서 83,921명이 스웨덴으로 이주했다.

출처: 한국선교연구원(Kri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자세대에)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예배와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세대에)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원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생애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부예배 오후 11:30 교육관 1층  
주요예배(토) 오전 10:00 분당

OMC 중동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와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토요일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영유아부/초중동부 주일 오전 11:00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일기도회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대)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주재: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00(월-토) 오후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삼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교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결함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학교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혜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 美 감리교, 끝내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UMC 총회에서 제이 윌리엄스 목사(오른쪽)가 동성애 목사 후보자의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해자는 안건이 통과된 후 동료 대의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UM 뉴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가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UM뉴스(UM news)에 따르면, 1일(이하 현지시각)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진행 중인 UMC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토론 없는 최종 투표에서 찬성 691, 반대 51로 교단 장정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회자에게 안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총회 대의원들은 이날 오전 총회에서 여러 청원안을 일괄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우선 처리 안건으로 상정된 22건의 청원안과 더불어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상정된 우선 처리 안건에는 감독이 동성결혼식을 주례하거나 또는 주례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회자나 개별 교회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건도 포함됐다. 또 총감독회가 에큐메니칼 모임에 참석할 교단의 대표자를 지명할 때 성별, 인종, 민족, 나이, 장애인, 성적 지향, 경제적 여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청원안도 통과됐다. 투표 직후 총회 장소에서 대의원들과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진 가운데, 은퇴한 주교인 호프 모건 워드(Hope Morgan Ward) 감독이 대표로 기도했다. 그는 오랫동안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워드 감독은 “당신은 매일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주님은 매일 세상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섬기고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켜 주시고, 이날을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UM뉴스는 “잠시 동안 이어진 휴식 사이에 200~300여 명의 대의원과 참관인들은 원을 만들고 손뼉을 치며 ‘하나님의 자녀’, ‘원을 넓게 그려라’ 등의 찬송가를 불렀다. 수십 년간 UMC를 포용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대의원들은 서로 포옹하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UMC 한인총회 총회장이자 LA한인교회의 담임인 이창민 목사는 UM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통적 입장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한인교회 임장에서 오는 의결된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다만, 그와 동시에 ‘개체 교회들의 신앙 전통에 맞는 목회자 파송’과 ‘동성결혼 주례 및 장소 제공 여부’에 관한 전적인 권한이 개체 교회와 담임 목회자에게 있을 뿐 아니라, (동성애자 목사 안수와 동성결혼식 주례 등을 반대하는) 목회자나 개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결이 함께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인교회 내 일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되나, ‘만유보다 크신’(엡 4:6)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욱 확장된 선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美 ‘성경적 세계관 지닌 기독교인’ 6% 불과

많은 미국인들이 혼합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인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리조나기독교대학교 문화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2024 미국 세계관 목록’(American Worldview Inventory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형적인 미국 성인은 평균 9개의 세계관에서 가져온 신념과 행동을 개인의 혼합된 세계관과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발견은 미국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미국 성인의 92%가 삶의 철학으로 선택한 혼합주의라는 사실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혼합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조합한 삶의 철학을 맞춤형으로 혼합한 것을 설명하는 용어”라며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독특한 이해와 반응을 창조하기 위해 인식된 다양한 세계관의 요소에 자신의 감정을 의존한 결과”라고 했다.

2021년 이후 미국 내에서 혼합주의에 대한 집착은 더욱 증가했다. 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8%가 혼합주의 세계관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성경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가장 일반적인 10가지 세계관 신념을 나열했는데, 미국인의 46%가 “결혼한 부부가 영원히 서로 계속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물문의 신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미국인의 46%는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누적된 삶의 선택을 통해 선하거나 악하게 된다”는 믿음을 믿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 치료적 이론, 세속적 인본주의, 애니미즘의 철학과 연관돼 있다. 응답자의 35%는 “올고 그림을 결정할 때 자신의 이성과 감정

에 가장 의존하게 된다”는 세속적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스트, 사탄주의 생각에 동의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은 “혼인은 지상의 죽음으로 끝난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진리를 전달하시며,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고 가르친다.

미국인의 31%가 “인간에게는 동물, 식물,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그들과 조화롭게 상호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범신론과 정령숭배와 연관된 철학을 받아들인다. 또 다른 31%는 “모든 동물, 식물, 바람, 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범신론, 몰몬교, 위카, 정령숭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성경적 세계관은 “인류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다른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다”, “동물, 식물 및 기타 피조물과 달리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조사 대상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인 성경적 세계관에 반대되는 다른 신념으로는 “메시아가 약속됐다”, “그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 땅을 방문할 것”(28%)이라는 유대교 사상이 있다. 해당 보고서는 1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오차범위는 ±2%p였다.

강혜진 기자

# 美 테네시주, '태아 발달 과정' 시청각 교육 의무화



©Kelly Sikkema/ Unsplash.com

미국 테네시주가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태아 발달 과정을 기록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도록 의무화한 두 번째 주가 됐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빌 리(Will Lee) 테네시 주지사는 지난달 23일에 하원 법안 2435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올해 3월 테네시주 하원에서 67 대 23으로, 4월 초에 상원에서 27 대 6으로 통과됐다. 테네시주는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법안을 모든 공화당 의원이 지지하고 모든 민주당 의원이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인간의 성장, 발달 또는 성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가족생활 교육 과정에 태아 발달 초기에 뇌, 심장, 성기 및 기타 중요한 기관의 발달을 보여주는, 최소 3개 이상의 고품질 컴퓨터 생성 애니메이션 또는 고화질 초음파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안은 '아기 올리비아를 만나세요'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시청각 자료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영상은 수정과 인간 발달의 단계를 보여주며, 미국 태아 생명 옹호 단체 '라이브액션'(Live Action)이 공인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협력해 제작했다. 라이브액션 회장 리아 로젠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은 100만 명이 넘는 테네시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라이브액션의 '베이비 올리비아'와 같은 세계적인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

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테네시주는 노스다코타에 합류하여 학교에서 인간 개발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올리비아라는 소녀를 예시로 들어, 임신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며, 출산이 '9개월간의 태아 발달 과정이 완료되는 순간'으로 설명한다.

노스다코타주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태아 발달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도록 의무화한 최초의 주다. 공화당 소속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서명한 하원 법안 1265호는 상원에서 37 대 9, 하원에서 75 대 16으로 통과됐으며,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다. 테네시주의 하원 법안 2435호의 통과를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둡스 대 잭슨여성보건의료' 판결 이후에 나온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50개 주는 자체 법으로 낙태를 규제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낙태를 임신 초기로 제한하거나,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이 주들 중 일부는 주 판매소에서 기저귀를 면제하거나, 아동 입양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메디케어(Medicaid) 혜택에서 낙태 보장을 확대해 여성의 낙태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동성애자 안수 허용 UMC 결정에 세계감리교회 "우리와 무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UMC 총회에 참석한 감독들. ©UM News

연합감리교회(UMC) 총회가 동성애자 안수를 금지한 교단 법안을 철회하고 동성혼 축복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세계감리교회(GMC)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총회 대의원들은 교단 장정에서 여러 가지 규칙을 삭제하고 성소수자(LGBT)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로 투표했다.

UMC에 대한 보수적인 대안으로 2022년 출범한 GMC는 최근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른 종교 단체의 활동에 대해 논평을 제공하거나 논평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GMC는 "세계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 세계 4,501개 이상의 교회와 교인들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헌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지난 2천년 동안 선포된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인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계감리교회는 교단의 강력한 기초를 수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라고 했다.

GMC는 UMC가 당초 2020년 5월로 예정되었던 총회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 번 연기한 후 2022년 출범했다. GMC의 목표는 UMC 교단 내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지도자들에 반대하여 UMC를 떠나려는 보수주의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동성혼과 비독신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바꾸려는 수십 년의 노력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UMC 내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성소수자(LGBT) 성직 안수를 금지하는 장정을 시행하거나 따르기를 거부했다.

2019년 특별총회에서는 UMC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을 위해 절차를 마련하는 임시 조치를 승인했다. 지난해 말까지 7천 5백개가 넘는 교회가 탈퇴했다.

한편, UMC는 지난 1일 40년간 금지해 온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규정을 삭제했으며 지난 2일 523대 161의 표결로 "동성애의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회생활원칙의 문구도 삭제했다.

이미경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경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디노회(미주)) 오후 8: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6: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종교동부(아기돌) 오전 11:00 영아부예배(만음제)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아침년회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11:15A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종교동부(아기돌) 오전 11:15AM 영아부예배(만음제) 오전 11:15AM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8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만음제)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EM예배 (2부) 오전 11:00 한아침년회 오후 12:30 한아침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월요일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일(만음제)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요일 오전 6:00 15914 Riata St., Northridge, CA 91327, (818)833-5887

OC예배 오후 7:30 수요일(만음제) 오후 7:30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r.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갈비, 떡갈비, 김밥,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면역력 강화
- 혈액순환 개선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3 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하여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 선교사 가정 돕는 CMF 사랑의 콘서트

올해 창립 25 주년을 맞은 CMF 선교원(Christian Mission Fellowship)이 선교사 가정을 돕기 위한 제 14회 'CMF 사랑의 콘서트'를 5월 18일(토) 오후 5시에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개최한다.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올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수 1:8)을 표어로 삼고 가정을 돕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한 찬양 음악회다.

특히 이번 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케리스 크리스천 챔버(Charis Christian Chamber)의 연주와 소프라노 이효정, 배주는 자매가 출연한다.

주최 측은 "가정의 달 5월에 열

CMF 창립 25주년 Charis 창립 10주년

제14회 선교사 가정을 돕기 위한  
**CMF 사랑의 콘서트**

2024년 5월 18일 (토) 5시pm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5

케리스 크리스천 챔버  
Charis Christian Chamber

이효정 Joanne Lee  
배주는 Rachel Bae

후원: 미주복음방송(KGBC), 미주 CBS TV,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 위클리, JAMA,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CMF 사랑의콘서트가 5월 18일(토) OC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린다. ©CMF

리는 CMF 사랑의 콘서트는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에 순종하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 가정을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생명력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될 것"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91년도 결혼교실 사역을 시작으로 설립된 CMF선교원은 가정사역, 가정선교, 특수선교를 하는 단체로 2018년까지 매년 선교사 부부 축제 등을 개최해 왔다.

주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문의: 714-733-3566, 714-733-3566

## 연세대학교 개교 기념 조찬기도회 개최



미주연세조찬기도회는 6일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연세대학교 개교 139주년 기념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미주연세조찬기도회(회장 최계희)는 6일 애너하임소재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연세대학교 개교 139주년 기념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장 최계희 권사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서문준 수석부회장 대표기도, 재무 신서영 권사 성경봉독, 김순필 동문 바이올린 특별연주와 권영대 목사가 지휘하는 여성합창단 특별찬양 후, 새찬양교회 담임 최우진 목사가 '진리와 자유'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국과 평화와 발전을 위해 김기동 목사, 모교 연세대학교 발전을 위해 박종대 목사, 연세대학교 동문들을 위해 황선철 장로,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를 위해 권기숙 회장이 각각 기도했으며, 방학섭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장, 김영숙 연세대학교 남가주동문회장의 축사 후, 총무 김철 목사 광고와 지용덕 목사 축도했다.

이날 90세가 가까운 여성동문과 여성장로들이 참석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우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복음전파를 위해 세워진 학교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갖게 한다"고 전했다.

이사장 정요한 목사는 "우리는 어쩌면 모교 연세대학교에 사랑의 빛을 진 사람으로 일년에 한 번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했다. 김민선 기자

## 美 보이스카웃, 성별 지우고 '스카우팅아메리카' 로 이름 변경

미국 보이스카웃(Boy Scouts of America, BSA)이 소녀들도 등록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성별 프로그램을 위해 단체명을 '스카우팅 아메리카'(Scouting America)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보이스카웃은 지난 1일 성명에서 스카우팅 아메리카로의 이름 변경이 조직 창립 115주년이 되는 2025년 2월 8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카웃 회장이자 CEO인 로저 A. 크로네는 성명에서 "이번 변경은 모든 사람들이 스카우트에 환영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이름은 새롭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인생을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스카우팅 아메리카는 청소년들이 서로 배우고 존중함으로써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환영받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스카우트 활동의 유익을 경험하도록 권장한다"고 했다.

2013년에 출범한 보이스카웃의 보수적 기독교 대안 단체인 '트레일 라이프 USA'(Trail Life USA)의 CEO인 마크 헨콕은 CP에 보낸 성명에서 이 발표에 대해 반응했다. 헨콕은 "100년 넘게 우리에게 대



통령, 우주비행사, 장군 및 시민 지도자들을 제공한 놀라운 역사를 가진 조직이 소년에 대한 집중을 포기하고, 그들과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핵심 강점에 대한 헌신을 포기한다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2018년에 보이스카웃은 처음으로 소녀들이 입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2018년 11월 보이스카웃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미국 걸스카웃(Girl Scou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포함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반발을 일으켰다. 고소장은 "보이스카웃이 핵심 프로그램에 소녀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로, 미국 걸스카웃은 상표에 미칠 피해와 그 상표가 상징하는 사명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는 걸스카웃은 보이스카웃과 합병되거나, 심지어 걸스카웃

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걸스카웃 프로그램 등록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대신 보이스카웃이 제공하는 새로운 소녀 프로그램에 잘못 등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두 청소년 스카웃 단체는 결국 2022년 7월 합의에 도달하며, 각각 상표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하고 걸스카웃은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카웃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했으며, 지속적인 논란과 학대 스캔들로 인한 법적 소송에 직면해왔다. 보이스카웃은 2013년 5월 청소년 동성애자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지 8년 만에 회원 수가 270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보이스카웃은 프로그램 중에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8만 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위한 24억 달러 상당의 청구 처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김유진 기자

이준수 칼럼

### 사랑하는 당신, 걱정하지 말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함께 '산책'을 다니시곤 했다. 저녁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아파트 단지를 한바퀴 둘러보시곤 하셨는데, 산책하시는 모습을 보면 두 분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셔서 옆이나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앞으로 후다닥 직진하셨던 반면, 어머니는 한참 뒤에서 이곳 저곳 쇼윈도, 간판 다 구경하시며 천천히 따라가셨다. 그 모습이 정말 재밌었다. 내 기억엔 두 분이 함께 보조를 맞추며 다정하게 걸으신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다.

또 항상 바쁘신 아버지가 모처럼 쉬는 휴일에 가족끼리 어디 놀러갈 때도 아버지는 벌써 준비를 다 마치고 문 밖에 나가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른 채 우리에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시는데,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를 일일이 챙기시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 결국 두 분 사이에 큰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 오랜만의 가족 나들이가 쓸렁해질 때가 많았다.

최근 아버지와 어머니가 4개월 간격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두 분이 천국으로 떠나신 여정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여름 아버지는 급성폐렴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신지 단 사흘만에 가족과 마지막 작별인사도 못하신 채 급하게 떠나셨지만, 어머니는 파킨슨병과 신장암으로 병세가 너무나 위중한데도 남은 식구들이 염려되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쉽게 떠나시지 못하고 한참을 버티시다가 지난 12월 말 천국으로 가셨다.

장애자녀를 둔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 자녀보다 하루 늦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는, 우리 어머니라고 왜 그렇지 않으셨겠는가? 내가 아무리 장성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목사가 되었다 한들 우리 어머니 눈에는 한낱 연약한 자식일 뿐이고 사람 같지도 않던 아들을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모든 열정과 젊음을 바쳐오셨던 만큼, 이제 이 아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눈을 감으시는 게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이다. 나뿐 아니라 홀로 살고 있는 둘째 아들 성욱이에 대해서도 걱정과 근심이 엄청 크셨던 것으로 여겨진다.

나로서도 내가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던 아버지, 어머니를 연이어 떠나 보내드리니 슬픔의 차원을 넘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상실감과 함께 내 존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내가 과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자주 되묻게 된다. 솔직히 몹시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토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키우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당신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내가 결코 흔들림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데에 있는 만큼,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념을 지닌 채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계속 성실히 이루어가리라 다짐해 본다. 부모님과 이별이 내 인생에 있어 새로운 출발이요, 장애인으로 진정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수업에서 돌아와 더 이상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빈 방에서 이 쪽지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곧 "엄마, 염려 마세요. 내가 잘 할게요!" 라고 외치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지난 UCLA에서 홀로 유학하던 시절, 어머니가 나를 보러 미국에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면 꼭 이런 쪽지를 남기시곤 했다. "사랑하는 아들 준수야, 엄마는 이제 떠난다. 감기 걸리지 않게 밤에 꼭 창문 닫고 자고, 휠체어도 조심 조심 타고 다녀라. 또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하려 애쓰지 말고 주위 분들에게 부탁하고... 엄마는 항상

걱정 걱정... 이제 엄마 잔소리 안 듣게 되어 좋지? 요놈아~"

수업에서 돌아와 더 이상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빈 방에서 이 쪽지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곧 "엄마, 염려 마세요. 내가 잘 할게요!"라고 외치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얼마 전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떠나실 때도 나에게 또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을 것이며, 나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으로 그 메시지를 읽으며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 또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렸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 준수는 결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베풀어주신 엄청난 '사랑의 힘'으로 인생 끝날까지 견디고 버티며,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하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항상 지켜봐 주십시오!"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다시 기쁘고 반갑게 만날 날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글 | 이준수 목사 (남가주말알선교단 영성문화사 역팀장)

진유철 칼럼

### 심령이 가난한 자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의 은혜를 목숨이 걸린 것처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잡한 마음이나 두 마음이 사라지고 삶이 단순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자랑하거나 치장하는 것보다 순수하고 명확해지면서 말씀을 가볍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삶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게 되었음에도 더 피곤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넘치는 정보와 비교의식 속에서 세속적 욕망은 점점 더 커지고, 오직 나, 나, 하면서 자아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정신과 감정의 장애들이 나타나고 심각한 우울증과 분노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주님의 사명을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2차 예과도르 단기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지금 예과도르는 60년만의 가뭄으로 수력발전이 멈춰 매일 수 시간씩 단전이 이루어지고 공무원은 강제 휴무하며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최연소인 1987년 11월 30일생 대통령이 경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어려운 예과도르 땅의 사람들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볍고 단순하게 사명을 순종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18:3)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그리스도인의 대표적 성품,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는 데서 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웃시야 왕이 죽자 조용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거룩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면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입니다"(사6:5)고 하며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살아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까지 했는데 중동 대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말에서 꼬꾸라져 떨어지며 마음이 깨어져서 자기가 아무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거룩과 영광 앞에서 깨어진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존하는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다윗의 시편42:1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이다" 식도가 말라붙으면 죽게 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뻗속깊이 인식하면 하나님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땀뻘 흘리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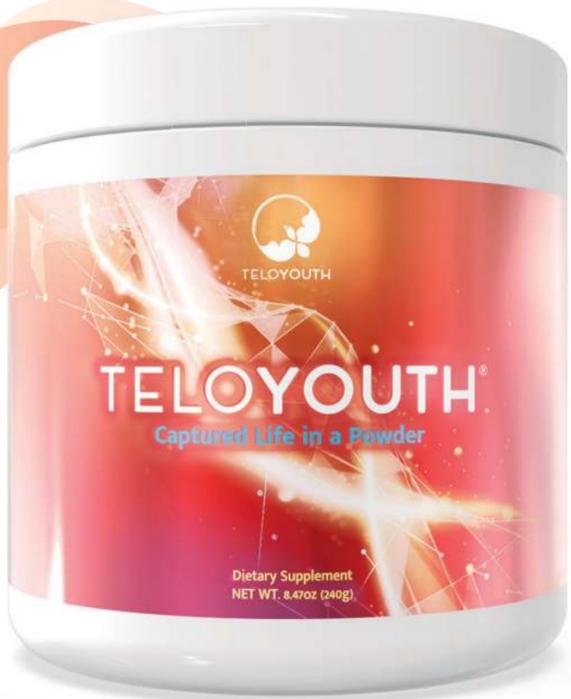
Record is Memory



TELOYOUTH

# 세포신호와 줄기세포 젊음회복 기술력 세미나

## How Cell Signaling and Stem Cells Rejuvenate the Body



초 장수 시대! 당신은 준비 되셨나요?  
세계최초 역노화(Reverse-Aging)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텔로유스에서 당신의 건강과  
젊음을 회복하십시오!

TeloYouth는 최소 10년 앞서간 세포신호기술력으로  
줄기세포를 활성화하여 온 몸의 구조와 기능들이 10년이상  
젊어지게 하는 세계최초 역노화(Reverse-Aging) 즉  
젊음 회복 기술력이며 세포 신호를 활성화 시키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eloYouth (세포신호영양소)를 만드신 박사님들을 모시고  
OC와 LA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00세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과 젊음 및 경제적 기회를, 텔로유스를 통해  
잡으시기 바랍니다!



Dr. Tina Johnson

**5월 18일 오전 9시 45분  
(부에나파크)**

주제: 숙면과 에너지를 위한  
세포신호기술력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Dr. Chris Morris

**5월 19일 오후 2시 45분  
(로스엔젤레스)**

주제: 스트레스 조절과  
줄기세포 및  
젊음회복기술력

690 Wilshire Pl., #302,  
Los Angeles, CA 90005

**예약필수: 714-732-8477 (폴 김)**

[www.TeloYouth.com](http://www.TeloYouth.com)

### 체험사례 글들

S\*\*님: 친구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70대에 얼굴이 이렇게 팽팽할 수 있을까 거울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J\*\*님: 지난 40여년 사용해오던 십여가지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님: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발톱 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W\*\*님: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님: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D\*\*님: 70대이지만 동창회 가면 제일 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레\*\*님: 90대에도 소일로 발일하시며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시다는 저의 노모의 건강은 텔로유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F\*\*님: 공황장애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R\*\*님: 갱년기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늘 피곤하면 나타났던 구순염도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네요

S\*\*님: 평생 고생하던 천식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뽐뽐 솟습니다.

\*\*자님: 80대에도 고운 피부와 젊은 에너지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J\*\*님: 10년동안 고생하던 혈당조절이 이제 정상으로 잘 됩니다.

N\*\*님: 딸인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이건 기적입니다!

P\*\*님: 30년간 복용하던 위장약을 드디어 끊게 되었고 소화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d님: 행하던 머리숱이 다시 자라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I\*\*님: 자주 부러지던 8살 딸아이의 발톱이 아주 건강해졌어요, 텔로유스가 맛있다고 자꾸만 달라합니다.

D\*\*님: 내 나이(83세)에 시력이 좋아졌어요, 의사가 백내장수술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M\*\*님: 평생 고생하던 변비 현상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다수의 임상연구 (Clinical Studies)로 검증  
수천명의 체험사례 유튜브 TeloYouth 채널에서 확인가능**

- 개인 소비를 통해 복미의 미자립교회나 선교사님들을 자동후원하는 프로그램 형성에 관심이 있는 분
- 남은 생을 훨씬 더 건강하고 젊고 행복하게 사시고자 하는 분
-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면서 신 기술력을 활용하여 남은 평생 안정적인 잉여수입이 구축되는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문의: 폴 김 (714) 732-8477**

민중기 칼럼

신앙은 성도를 주인으로 만드는가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
KCMUSA이사장

작년 여름, 고국에 들렀다가 동생 집에 며칠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동생은 제수씨가 있든 없든 매번 설거지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설거지했지?" 동생은 "별써 한참 됐지." 나는 대답하였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몰랐지, 왜 안 보였지?"

미국으로 들어온 저는 아내에게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 설거지해야지" 말했습니다. 착한 아내는 바빠 목회하던 제게 집안일을 부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저의 일

때문에, 가사의 부담에서 저를 해방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까요" 했습니다. 설거지 경력이 10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돌아가신 아버지도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늘 섬겼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렇지!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하여 봉어와 채소 삶은 물을 늘 준비하셨지." 저도 비로소 아버님의 섬김을 조금 닮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곳에서 신분적 차원의 노예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노예제가 있었고, 성경의 중심 주제 중의 하나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성경의 첫 다섯 책 모세 5경은 노예제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이집트 종 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 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사도 바울은 노예제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갈 3:28)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신분제도의 폐지를 향한 방향 지시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완벽한 자유인이 되어 종이 아닌 주인"이 된다고 선언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외견상으로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사망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종의 멍에를 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주인 노릇을 시작할까요? 우리가 해방되었으니 누구를 종으로 삼을까요? 주인이 되려면 노예가 있어야 하는데, 해방된 우리가 누구를 노예로 만들까요? 주변의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나 자연을 종으로 삼을까요?

하나님의 해방과 세상의 정치투쟁이 가져오는 해방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해방은 동이나 혁명은 계급적 위치를 바꿉니다. 혁명적인 변화는 지배집단과 그 통치체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주인이 종이 되고, 어제의 종이 오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해방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 세상

의 종이 아닌 "나의 종"(사 41:8-9, 49:3)이라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복음으로 해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자유를 육체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고 권면을 받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죄에서 해방된 우리를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구속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살리는 왕, 세우는 왕, 그리고 지키고 섬기시는 왕입니다. 세상의 종에서 삼위 하나님의 종, 그의 소유된 우리는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자 주의 소유된 백성"(벧전 2:9) 곧 청지기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신분의 변화는 제로섬(zero-sum)게임이므로, 손해와 이익을 합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우리는 서로 섬기고 종노릇 하므로 승승(win-win)의 인간관계, 생산적인 평화의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예수 사랑하심은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찬송가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 (Jesus Loves Me)"찬양은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어린이들의 찬송가입니다.

이 찬양을 기억하면 필자가 어린 시절 겪었던 추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1970년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5월의 마지막 주 정도로 어렵 뜻이 기억합니다. 필자가 주일학교를 간다고 나서서는 교회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자 서리를 해서 구워 먹었던 그날, 제 평생에 저의 엄마로부터 가장 큰 꾸지람과 회초리로 때를 맞으며 그날 밤, 엄마가 주신 벌로 저는 이 찬송을 목 놓아 불러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에 힘입어 모태 신앙으로 어려서 부터 주일을 성수하는것이 철칙이었던 필자는 단짝이었던 친구가 몇 주 전부터 계획한 이 공놀이를 감자 서리 모임인 이날 꼭 함께가자 라는 그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함께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감자 서리를 해서

배불리 먹고 마음 한편에는 큰 두려움을 머금은 채 집으로 들어온 그날 필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필자가 교회를 가지 않았던 사실을 알았던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갑자기 변신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필자에게 "어디 다녀왔니" 딱 한마디만 묻고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바지 종아리를 울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종아리에 피멍이 들게 회초리를 내리 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벌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는 반성문을 쓰기, 다른 하나는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10번 부르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성문을 쓰는 가운데 필자의 머리에 가장 떠올랐던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이었기에 그날 밤 필자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당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자식으로 아셨던 엄마가 필자에게 그 무서운 채찍과 함께 당근을 주려고 하셨던 현숙한 어머니로 기억됩니다.

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의 가사는 안나바틀렛 워너(Anna Bartlett Warner, 1827-1915)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안나와 그의 언니 수잔(Susan Warner, 1819-1885)은 19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소설 작가들입니다. 안나는 당시 에이미 로 스톰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로빈슨 크루소의 농장 (Robinson Crusoe's Farmyard)", "달러와 센트 Dollars and

Cents", "웨스트포인트 색채들 In West Point Colors", 등 31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두 자매는 106권의 소설과 동화책을 출간했으며, 그 중 헤이즐 Wych Hazel", "러더포드 씨의 아이들 Mr. Rutherford's Children", "샤테무크의 언덕 The Hills of the Shatemuc" 등 18권은 함께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찬송가의 제목 "예수 사랑 하심은"이라는 말은 그녀의 언니가 1860년 써서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소설 "말과 인장, Say and Seal"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소설에서 주일학교 교사인 린든(Mr. Linden) 씨가 그의 제자 조니 팩스(Johnny Fax)를 위로합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장면을 보고 안나가 그것을 발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녀는 성경 고전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적용하여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최종적 교훈입니다. 즉 성도들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어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몸을 타락시키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1862년 윌리엄 배첼더 브래드버리(William Batchelder Bradbury, 1816-1868)가 후렴구에 "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를 더해 가사에 선율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교회에서 어린이 찬송가 중 가장 인기 있는 찬송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현대문명이 주는 이기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명품들이라 자랑하며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이에따라 온갖 편리함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듯 한데, 왠지 마음 한편에는 더 큰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의 이 공허함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자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사실답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함과 순수함을 지닌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의 마음을 가진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며 동심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 단순하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순수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던 70년대 오월의 마지막 주일 저녁을 그리워 하게 됩니다.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영성훈련, 성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피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침례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ACSI, SACS 인증
-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수업
- 학사금 지원 (Col & Post Grants)
-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원목심종과정, 목회학 석사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목회학, 중국어 신학, English M.Div.
- 박사 | 목회학, 신학, 선교학,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CSI, SACS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어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상담문의: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a.edu



# 넘김치는 사랑 감사입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소중한 나의 부모님의 건강은 크고 튼튼한  
서울 메디칼 그룹의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한인 의료진들이  
30년 이상의 노하우로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믿음이 주는 선물, 자유

# ‘오직 믿음’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순종과 행위



### 그리스도인의 자유

마르틴 루터 | 조계광 역 | 개혁된실천사 | 96쪽 | 8,000원

1592년에 인쇄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마르틴 루터의 저작 중 가장 유명하고 아직도 꾸준히 읽히고 있다. 이 책에서 루터는 이신칭의가 어떻게 신자를 자유롭게 하는지 살펴하면서 종교개혁의 열쇠가 된 사상과 교리를 전개시켜 나간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즉시 자녀의 상태에서 종의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종의 상태에서의 행위는 자유롭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책은 이 점을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다.

칼 트루먼은 마르틴 루터가 쓴 <교회의 바벨론 유수>, <독일 귀족에게 고함>,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종합하면 ‘종교개혁의 완벽한 선언문이 완성된다’고 말했다(10쪽). 각 책은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말씀과 연관돼 재구성되는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정립되는지,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바르게 개정되는지를 다룬다.

트루먼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루터의 ‘신학 체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11쪽). 루터가 선행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신자에게 여전히 행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루터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창하느라 믿음에 합당한 삶, 선행을 간과했다고 생각한다. 갈라디아서는 사랑하고, 야고보서는 미워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루터 초기 작품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이 입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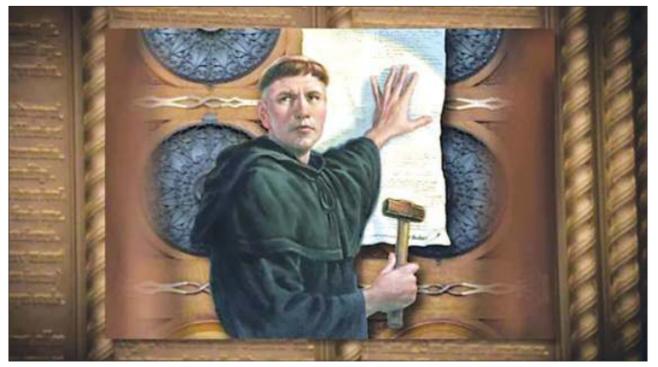
짧은 역사적 글을 좋은 품질의 서적으로 보존하고, 현 세대 독자에게 좋은 작품으로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만든 ‘기독교 고전 소책자 시리즈’ 네 번째 책인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본 루터의 가르침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루터는 이 책을 비텐베르크에서 두 번째로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히에로니무스 윌포르트 츠비카우 시장에게 헌정했다. 이 책은 총 30개 요점으로 정리돼 있고, 크게 3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I, II, III으로 구분). 처음부터 루터는 자유와 섬김의 모순되는 명제를 기독교 진리로 조화롭게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하겠다고 선언한다. 첫 장에서 그가 먼저 다루는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이다. 율법의 요구를 조금도 이룰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그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놓임받는 그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 루터는

여기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설명한다. ‘모든 것이 믿음 안에 놓여 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고 말한다(44-45쪽). 복음에 약속된 자유(죄로부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된다. 두 번째 장에서 루터는 믿음이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믿고 그 대상과 연합하는 것임을 밝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듯, 믿음은 영혼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며, 자유롭고 복되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든다(49쪽)”.

믿음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에 원동력을 제공해, 나머지 계명을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게 만든다. 루터는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단순한 행위와 믿음에 따른 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려 노력한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곤, 여러 종교행위에 몰두하면서도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루터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세 번째 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체를 지닌 상태로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를 제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행위가 필요한 이유다. 속사람은 이 일에 나태해서는 안 된다. 육체는 속사람과 믿음에 복종하고 순응하도록 금식과 철야 기도과 노동을 비롯해 모든 합당한 수단들을 통해 제어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육체는 강제하지 않으면 속사람을 방해하고, 거부하려는 성향이 있다(67쪽)”. 재차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



95개조 반박문을 내거는 마르틴 루터.

가 없었던 관계를 생성시키거나 구원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기 마련이다(73쪽)”.

루터는 특히 이 선행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제시한다. 루터의 신학은 교회 안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같은 원리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기독교 고전 소책자 시리즈’는 ‘두꺼운 책을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고, 두꺼운 책을 읽지 않을 독자들을 특히 염두에 두

고 있다(18쪽)’. 그래서 추천한다. 그래서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깨닫고 나서도 다시 오해하여 잘못된 적용으로 빠지기 쉬운 주제다. 이 부분에 있어 가장 많은 고뇌와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던 역사적 인물, 마르틴 루터에게 직접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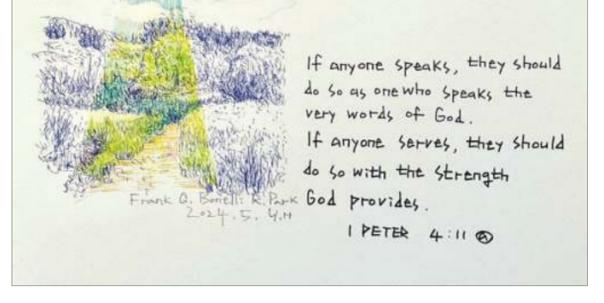
분명 이 책을 읽는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조정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 전서 4:11 상



If anyone speaks, they should do so as one who speaks the very words of God. If anyone serves, they should do so with the strength God provides.

1 PETER 4:11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 2024 SPECIAL PROMOTION

#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범죄도시 4>

# <범죄도시> 시리즈, 유쾌한 형사극 이면 '제노포비아'



강력한 흥행력을 가진 통쾌한 형사극, <범죄도시> 시리즈 주인공 마석도(마동석).

**영화 속 악역, 모두 외국과 연관  
한국인 오만한 우월감 곳곳 깔려  
성리학과 쇠국 집착 등 어리석음  
철지난 민족주의 이념 벗어나야**

◆수사극 속 악당: 주인공 마석도의 매력을 살리는 악역들의 캐릭터

<범죄도시> 시리즈는 현재까지 네 편이 제작·발표됐고, 앞으로 총 네 편이 더 제작될 예정이다. 속편이 이렇게 이어지는데도 1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흥행력을 발휘하는 작품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굳이 비교하자면 <분노의 질주> 시리즈 정도가 유사한 흥행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범죄도시4> 역시 개봉한지 불과 열흘 만에 600만 관객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5일 700만을 돌파했다. 현재의 흥행 추세로 볼 때, 이전 2·3편과 마찬가지로 <범죄도시4> 역시 거의 확실하게 1천만 관객을 달성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 한국영화의 극장 흥행력이 현저히 감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도시> 시리즈는 그에 영향 받지 않는 티켓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여러 영화평론가들이 자세하게 분석한 것처럼, <범죄도시> 시리즈의 최대 흥행요인은 첫째는 주인공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의 호쾌한 성격 및 수사 방식이고(주먹질의 타격감 표현 또한 마석도 캐릭터의 중요 흥행 요인이다), 둘째는 각 편 악역들의 어두운 카리스마다. 이 둘이 충돌해 결국 악역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 관객이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범죄도시 시리즈 흥행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범죄도시> 시리즈는 마석도 형사만큼, 혹은 마석도 형사보다 더 악역 캐릭터가 중요하다. 악역 캐릭터가 살면 마석도 형사도 돋보이고, 악역

의 카리스마가 기대에 못미치면 마석도의 수사와 활극 역시 힘이 빠지는 느낌이다. 1편의 조선족 조직폭력배 두목 장첸(윤계상 분), 2편의 납치살해범 강해상(손석구 분), 3편의 부패한 비리경찰 주성철(이준혁 분), 그리고 이번 4편의 온라인 카지노 운영 조직폭력배 두목 백창기(김무열 분)까지, 각 편 악역들은 모두 나름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서사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악역은 당연히 계도 1편의 장첸이다. 관객들 입장에서 마석도와 장첸의 대결은 이후 모든 <범죄도시> 시리즈 선악 대결의 지향점이자 평가 기준으로 인식된다.

<범죄도시> 1편은 이 막강한 흥행력을 가진 시리즈의 성공 공식을 정립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비판도 받았다. 무엇보다 장첸이라는 악역의 설정과 캐릭터를 통해 작품에 드러난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에 대한 혐오심과 반감) 정서가 비판 대상이 됐다.

◆수사극 속 외국인: 주인공 마석도 매력을 살리는 악역들의 캐릭터

조선족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선은 이율배반적이었다. 그들 다수는 한국에 들어와 우리가 기피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맡았다. 그들은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 농촌 등에 들어와 일했는데, 언어 소통에 무리가 없고 문화적 공통점도 커서 한국 사회에 표면적으로나마 잘 동화됐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조선족 이주민들이란, 민족적 기원을 따지는 민족주의 정서를 내려놓고서라도 현실적 이유로 반감게 맞이해야 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중국 국적자들로서 우리 한국인들과 정치 이념이나 안보관이 크게 차이가 났다. 그래서 이들의 정착에 큰 우려감을 내

비치는 이들도 많았지만, 어찌 됐든 조선족 이주민들 가운데 많은 수가 귀화도 하고(약 15만 명) 결혼도 해서 이웃으로 잘 정착했다. 현재는 그 다음 세대들이 한국에서 교육 받고 자라나 적지 않은 수가 전문직, 공무원 등으로 종사하며 살아가는 중이다.

이는 미국 이민 1세대 한인들이 비교적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지만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킨 결과, 많은 수의 2·3세대 한인들이 미국 사회 각지에서 정치인이나 법률가, 회계사, 의사 등으로 활동하며 중산층 이상 사회계층에 포섭되어 사는 것과 같은 현실이다. 한국인들과 조선족 이민자들 양측 사이에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국인들의 배타적 태도와 멸시하는 시선, 조선족 이민자들의 차별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양측 사이 감정적 갈등이 있었지만, 한중 수교 이후 35년째인 현 시점에서 양측의 조화로운 공존이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조선족 이주민들을 비롯해 한국에 들어오는 여러 개도국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편과 멸시의 감정을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한 모양이다. <방가? 방가!>나 <헤어질 결심>, <오징어 게임> 같은 예외적인 작품도 더러 있지만, 국내에서 외국인 이주민, 특히 개도국 이주민들에게 주요 배역을 맡긴 작품에서는 그들을 멀리해야 할 자들 혹은 희화화해 비웃을 자들로 그려내는 것들이 더 많다.

<범죄도시> 흥행에는 바로 이런 시노포비아(Sinophobia, 중국인들에 대하여 느끼는 혐오심과 반감), 나아가 전반적인 제노포비아의 정서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범죄도시> 악역은 1편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인이다. 그렇지만 2·4편 악역의 활동 무대는 베트남·필리핀 등 외국이다. 그리고 3편 악역은 외국 폭력조직인 야쿠자와 협업하며 악행을 저지른다.

<범죄도시> 시리즈에 등장하는 범죄자들은 모두 외국으로부터 넘어온 자들 아니면 외국으로 넘어간 자들 아니면 외국 범죄자들 뒷배로 둔 자들이다. <범죄도시> 속 모든 범죄의 뿌리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니라 해외에 있다.

<범죄도시> 속 한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설정을 자세히 들여다 봤을 때, 이들이 만일 외국 혹은 외국인과의 접점이 없었다면 그렇게 악랄한 짓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고가 은연중에 작품 전체에 깔려 있다.

한국은 치안이 좋고 법치 체계가 잘 정착돼 있고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지만, 해외 특히 대한민국보다 경제적 발전도가 아직 낮은 중국·베트남·필리핀 등은 치안도 불

안하고 행정력도 확고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뒤떨어져 있다는 오만한 우월감이 작품의 서사 이면에 깔려 있다. 그래서 외국의 영향을 받거나 외국에 나가지만 하면 한국인도 범죄자로 전락한다는 사고가 <범죄도시>의 악역 설정에 반영돼 있다. 이것은 19세기 말엽까지도 성리학 사대부들이 갈망했던 복고적 이상향을 꿈꾸며 쇠국에 집착했던 폐쇄적인 한민족의 서글프고도 어리석은 단상이다. 현재 대한민국 위정자들과 사회 지도층은 가족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적 가치, 인격적 친교의 가치를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린 채 권력과 이권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없는 대중은 이들 지도층인 사들의 정치적·경제적 횡포에 대책없이 휘둘리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미래 세대의 존속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렸다. 이런 현실에서 민족적 우월감에 기댄 제노포비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 수많은 외국인 범죄를 근거로 들며, <범죄도시>에 반영된 외국인 인식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외국인 범죄가 우리 사회를 불안케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 사회 기득권층은 이런 불안 요인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주민들을 대거 한국으로 데려오는 선택을 했고, 일반 시민들은 그런 기득권층을 투표로 뽑아줬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한 현실에 대비해 치안과 범죄예방 노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일 것이다. 다문화·다인종·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은 향후 한반도가 맞이해야 할 정해진 운명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낡은 민족주의 이념에 빠져, 변화하는 현실에 대비할 의지조차 내보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에 대한 노동의 의존 정도는 더 심해질 것이고, 외국인들과의 결혼으로 다문화 가족 비중도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미디어는 다문화·다인종·다민족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은근히 부각시키는 데 열심을 내고 있다.

한국교회회는 이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에 동조하지 말고, 앞으로 한반도에 펼쳐질 다문화·다민족 사회의 정황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낡아빠진, 그리고 우리 장래 현실에도 맞지 않는 자아도취에 불과한 자민족중심주의를 가지고는 이 사회의 변화, 전도 현장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 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으려 하는 진정성을 가진 이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 \*\*\* 전기세 50~90% 절감 \*\*\*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BTS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Lic#854389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세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JGP, 가정의 달 감사 이벤트, “기쁨이 두 배”



건강 증진 기능성 신발 JGP가 가정의 달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JGP

## 건강증진 신발 효도 선물로 인기 5월 말까지 추첨 통해 경품 증정

건강증진 기능성 신발 브랜드인 JGP가 가정의 달 감사 이벤트로 구입 고객에게 경품응모권을 증정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한 몸을 만드는 ‘기적의 신발’로 유명한 ‘JGP’에 가족 단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JGP는 발의 정확한 균형을 맞추고 몸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의학, 공학적으로 설계된 건강증진 기능성 신발이다.

스티브 김 대표는 “평소 무릎 및 허리 통증이 있으시거나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의 족부질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매장을 방문하는 효성 깊은 고객들이 정말 많다. 이미 JGP를 신어보신 부모님들이 오래 서서 일하는 ‘우리 아들딸, 사위, 며느리도 꼭 신어봐야돼’라며 선물하시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아 자주 넘어지는 분들, 걸음걸이가 불편하

신 분들이라면 JGP로 삶이 달라질 것”이라며 “발을 알고 JGP를 신으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JGP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하는 기쁨이 두 배가 될 수 있도록 5월 가정의달을 맞아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위치한 JGP전시 판매장은 구매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JGP 신발을 구매하는 전 고객에게 추첨 응모권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JGP는 이후 추첨을 통해 JGP 신발부터 신발을 관리할 수 있는 가족 로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감사 이벤트의 참여 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다. 기간 내 올림픽 갤러리아 매장에서 JGP 신발 또는 선물에 응모한 고객은 오는 6월 4일 공



개 추첨을 통해 ▶JGP트레킹화(1명)▶JGP일상화(골프화, 부츠, 트레킹화 제외, 2명)▶JGP실내화(남.녀 슬리퍼, 4명)▶명품 가방에도 사용 가능한 천연가죽 관리 로션(25명)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JGP는 착화 즉시 척추에 강한 힘이 생성되어 척추 교정 및 허리 힘 강화에 도움을 주며, 양발에 균형적인 힘이 가게 함으로써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변형된 발의 정상화를 통해 신체 균형을 유지해 준다. 또한 강한 지압 효과를 통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준다.

JGP 신발은 일반 운동화부터 정장화, 캐주얼화, 트레킹화, 골프화, 샌들, 슬리퍼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날 수 있으며, 전시 판매장은 올림픽 갤러리아 3층 푸드코트 옆에 위치한다. 김민선 기자

# 英 법안 “신축건물에 성별 따른 화장실 각각 제공돼야”

영국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안전, 사생활, 존엄성’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신축건물에 성별에 따른 화장실이 각각 제공돼야 한다.

BBC에 따르면 올해 말 시행을 위해 몇 주 내 의회에 제출될 이 법안은 레스토랑, 쇼핑몰, 사무실, 공중화장실 등 모든 신축 건물이나 재건축 건물에 적용된다고 한다.

이 법은 또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컨테이너에 변기, 싱크대, 손 건조기

가 포함된 ‘자체식 범용 화장실’ 옵션을 허용한다.

케미 바데노크 여성평등부 장관은 “이 규정은 확산되고 있는 성중립 화장실이 남녀 모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바데노크 장관은 성명에서 “이 규정은 조 직이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설계하도록 유도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부정하는 소위 성 중립적인 화장실 공간의

증가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발표는 또한 여성을 위한 더 나은 규정을 마련해 특정한 생물학적, 건강 및 위생적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디언에 따르면 바데노크 장관은 최근 영국의 일부 여학생들이 성 중립 화장실 사용을 너무 싫어했으며 여성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조사를 진행한 경과 생물학

적 남성과 여성이 같은 공간에서 세면대와 칸막이를 공유하는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많은 여성, 노인, 장애인들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접수한 약 1만7천여 건의 답변에 따르면 대부분 건축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는 남녀 구분된 화장실을 지지했고, 82%는 1인용 범용 화장실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미경 기자

▪ Tue ~ Sun: 9:00 am ~ 7:00 pm  
 ▪ Monday : Closed  
**323-465-7400**  
 21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멜피닌,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멜피닌,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1.800.909.0001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